

한화케미칼, 머크에 바이오시밀러 공급

관절염 치료제 HD 203 판매계약 체결 ... 바이오의약 사업 중점육성

한화케미칼은 자체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동등생물의약품) <HD 203> 판매계약을 미국 머크(Merck)와 맺었다고 6월13일 발표했다.

HD 203은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Enbrel)의 바이오시밀러이다.

양측은 계약에 따라 판매를 위한 개발과 상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머크는 한화케미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글로벌 임상과 생산, 판매를 담당하며, 한화케미칼은 초기 계약금 외에 사업 진행경과에 따른 추가 기술료 및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다.

홍기준 한화케미칼 사장은 “머크처럼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한화케미칼의 바이오 사업 전략이 성공적이라는 증거”라며 “앞으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신사업 중 하나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1년 신년사에서 “앞으로의 10년이 한화의 글로벌 선진화를 이룩할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그린에너지, 바이오와 같은 차세대 신사업은 그룹의 미래를 위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13>